

복음나눔 PRE STEP을 다시 복습합니다 PRE STEP DAY

1관

핵심 키워드 : 부르심,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것은 ‘관계’ 가운데 살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크게 3가지이다. 내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이다.

우리 삶의 어려움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세 가지 관계를 잘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참 어렵다. 하나가 잘 되는 것 같으면 다른 것이 힘들어지고, 다른 것이 괜찮아지면, 또 다른 관계가 어려워진다.

2관

핵심 키워드 : 하나님의 디자인, 죄,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관계가 전부이지만, 성경은 한 가지 관계를 더 이야기한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기초로 다른 세 가지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나에게 주어진 세 가지 관계를 아무리 잘 만들어가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다른 관계를 모두 어긋난다.

하나님 디자인하신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모두 깨어졌다.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를 썼지만 답이 없었고, 그것이 지금 시대의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시대 흐름으로 나타났다. 그 어디에도 답이 없기에 스스로가 답이 되는 것! 성경은 그러한 관계가 깨어진 이유를 ‘죄’라고 말한다. ‘죄’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언어이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죄’라고 한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치열한 싸움이였다. 그런 내 모습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한다.

3관

핵심 키워드 : 복음, 구원, 믿음, 교회생활

우리에 주어진 관계가 모두 깨어진 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인간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이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메시야’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을 ‘예수’라고 고백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구원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제는 나를 믿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역시도 관계언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교회생활’을 통해 훈련하게 된다.

소그룹 논의

1. 세 가지 관계 중에 내가 불편한 관계는 무엇이며, 나는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 나눠봅시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불편함의 원인이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나눠봅시다.
2.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언어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해봅시다.
3. 내 삶에서 ‘죄’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또한 왜 그렇게 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4. 복음은 NEWS입니다.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인다면 복음으로 인해 내 삶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5.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내 삶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을 나눠봅시다.